



전남도가 오는 24~26일 3일간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전남 우수 특산물 글로벌화와 K-푸드 열풍 확산을 위한 '2025 전남 세계 김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남 세계 김밥페스티벌 모습. <전남도 제공>

세계인 입맛 사로잡은 ‘전남 김’ ‘김밥’으로 만나는 K-푸드 매력

24-26일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전남도가 전남 대표 식재료 ‘김’의 글로벌 브랜드 제고와 K-푸드 열풍의 확산을 위해 ‘2025 전남 세계 김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처음 개최된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은 기존 소비층인 중·장년층을 넘어 MZ세대인 청년층의 호응까지 이끌어내며 2만명이 방문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전남의 풍부한 수산물을 활용한 식재료와 김밥의 다양성을 홍보하기 위해 남도 국제 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보강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해외판로 개척...전남 특산물 글로벌화

2025 전남 세계 김밥페스티벌은 ‘김 한 장에 담긴 남도의 맛, 세계를 홀리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는 전남의 땅과 바다가 키운 식재료가 세계로 비상하는 내용을 시각화한 퍼포먼스와 함께 전남 특산물 활용 상품개발 및 판매 확대, 청년·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유통 플랫폼 조성, 글로벌 김밥 브랜드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전남도와 CU, 풀무원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식전 공연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 프로그램 다채
특산물 활용 상품 개발·판매 업무협약
김밥 시식·수산물 경매·체험까지 눈길

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연을 모티브로 K-FOOD의 원조 ‘전남 김밥’과 ‘헌터스 골든’의 커버 댄스 콜라보 공연이 준비됐다.

유아·어린이 가족을 위해 티니핑 대표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싱어송 무대로 마련돼 어린이들이 직접 따라 부르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공연이 될 전망이다.

◇도민·관광객 아우르는 축제 한마당

축제 둘째 날인 25일에는 메인 무대에서 전남 농·수산물과 김밥 문화를 주제로 이연화 푸드아트 명인을 초청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토크쇼를 진행한다.

또 축제 기간 베테랑 경매사의 진행 하에 굴비, 전복, 천일염, 다시마 등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전남 수산물 싱싱경매소가 매일 열린다.

축제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현장에서 즉석 신청·접수·참여하는 가족 단위 이벤트로 엄마·아빠·아이가 함께 김밥을 만들며 웃음과 추억을 쌓고 현장 분위기를 즐겁고 활기차게 만드는 게릴라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유튜브 크리에이터 핑송의 공연과 함께 지역 아티스트의 감성 음악 공연, 파스한 가

을 햇살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함께 김밥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힐링 쉼터 공간도 제공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마중기

행사장 내 마련된 주재존에서는 세계로 유통하는 전남 김 전통 생산 방식과 현대적 가치 확산 과정, 전남 수산문화의 뿌리와 미래 비전과 전남 대표 수산기업의 브랜드별 제품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체험존은 어린이가 참여해 전 세계적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체험하고 결과에 따라 지역 특산물 세트, 캐릭터 풍선, 기념품 등을 증정 받을 수 있다.마켓존은 전남의 문화와 식재료를 스토리텔링하는 굴비된장 김밥, 꼬막 김밥, 전복 김밥 등 각종 이색 김밥을 시식·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장비를 활용해 김밥을 빠르고 위생적으로 제작하는 로봇 김밥, 김밥을 주제로 다양한 상품 판매 및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할 수 있는 폴리마켓 등 풍성한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월드존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각 나라의 식재료를 사용한 전통음식과 김밥의 콜라보와 국가별 전통의상, 전통놀이 체험 공간을 조성해 글로벌 참여를 유도하고 다문화 이색 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김밥페스티벌을 통해 전남 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남도장터, 추석 매출 136억 ‘역대 최대’

주문 10만여건 전년比 101% ↑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21일 “올해 추석 명절 기획전에서 역대 최대인 13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남도장터는 추석 기획전에 ‘대한민국 수산대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1억8천만원을 활용한 할인 뿐만 아니라, 시·군 상생 기획전, 민간 협력 기획전, 이상 기후 대응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지역 수산물 긴급 소비 촉진 캠페인 등 도비 6억7천만원 규모 정책 사업을 동시에 전개, 판매 효과를 극대화했다.

단순 매출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매출이 부진한 영세·소상공인 및 노인 일자리 생산품에 최

대 50% 단독 할인을 집중 지원하며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의미를 더하고 있다.

남도장터 주문 건수는 전년 추석 대비 101% 증가한 10만9천510건을 기록했다. 남도장터 매출 비중 역시 49억원으로 늘어 전년 대비 9.6%p 상승한 38%로 집계됐다.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101% 급증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과 CS 처리로 플랫폼의 견실한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추석 기획전은 그동안 남도장터가 유지해 온 정부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연계한 홍보·마케팅 전략이 소비자 호응과 매출 증가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25일 5·18광장서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

청소년 직접 기획...공연·체험 ‘풍성’

광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1시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2025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기독교청소년연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청소년 주도형 문화축제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다.

이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고 시민과 어우러지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활동이 어우러진 청소년과 시민의 축제로 마련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디지털플레이존, 인공지

능(AI) 아트체험,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등 25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16개 지역 청소년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뮤지컬·태권도 특별공연, 청소년 밴드 버스킹, 플래시몹 등 다양한 무대가 청소년과 시민들을 맞이한다.

특히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식전공연에서는 청소년 뮤지컬동아리 하랑탑의 공연과 용인대 청무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이 진행돼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상상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문화의 소비자가 넘어 생산자이자 실천가로 성장하는 무대”라며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청소년 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 시내버스 무료 환승 1시간으로 연장해야”

진보 광주시당, 2천923명 서명부 전달

진보당 광주시당은 21일 “광주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무료 환승 시간 연장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한 결과, 2천923명의 시민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현재 광주의 무료 환승 시간 30분은 시민 불편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일부 외곽 지역이나 배차 간격이 긴 노선은 30분을 훌쩍 넘어 해당 구간 시민들이 무료 환승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출퇴근 시간대 만원 버스가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다음 버스를 기다리다 환승 시간이 초과되는 일도 빈번하다”며 “시민들은 1천25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큰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당은 또 “대전의 경우 배차 간격 15분 이내 노선은 30분, 16분 이상 노선은 60분으로 무료 환승 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광주의 특성과 친환경 ‘대자보 도시’ 정책에 걸맞는 교통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주시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간 1시간 연장 촉구’ 내용의 민원과 시민 2천923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변은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